

광주 교통문화 확 바꾸자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광주지역 민·관·정·계가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범시민기구를 구성하고 광주 교통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특히 광주는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지역 각계의 '이기투합'을 통한 '교통인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각계 대표와 시민 등 750여명은 지난날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교통문화 선진지'로의 도약을 본격 선언했다.

(명단 2면·인터뷰 7면) 이날 출범식에는 김양균 상임대표(전 헌법재판관)와 박광태 광주시장, 민주당 김동철 의원, 신상규 광주교감장, 박영렬 광주지검장,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광주의 교통질서 개선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주와 인권, 평화의 성지인 광주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교통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역대 최

대 규모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광주의 '교통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4년째 '교통사고 전국 1위'란 오명을 쓴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광주는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가 156.4건으로, 전국 평균(105.4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교통문화 개선에 대

한 필요성이 높게 요구돼 왔다.

또 이 기구는 지역 내 각계 단체와 언론, 시민 등이 총 망라된 '통합형' 조직을 갖춰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상임대표와 함께 각계 단체 대표 40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명예고문 19명과 고문 10명 등이 추대돼 시민운동을 이끌게 됐다.

또 산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집행위원회'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계도 및 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교통시설 및 제도 개선', '교육·홍보', '제도·단속' 등 3개 부문에서 대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전개된다.

운동본부 측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낮 시간대 전조등 켜기 ▲방향지시등(깜박이) 켜기 ▲교차로 신호 준수 ▲무단횡단 금지 ▲먼저 양보하고 인사하기 등 5대 행동강령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박영렬 광주지검장은 "4년째 교통

- #### 5대 행동강령
- 1 낮 시간 전조등 켜기
 - 2 방향지시등 켜기
 - 3 교차로 신호 준수
 - 4 무단횡단 금지
 - 5 먼저 양보하기

사고율 1위의 기록은 광주의 '의향'과 '예향',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데다 도시의 장래를 어떻게 하는 오명"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광주가 교통문화의 선진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난달 30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광주의 교통문화 개선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확대순환형으로” “진도 팽목항 ‘아시안 게이트’로 만들 것”

박광태 시장·박준영 지사 민선 4기 3주년 회견

주민들간 노선갈등으로 확정이 유보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선형이 '확대순환형'(효천지구~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철단산단~시청~백운광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4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과 시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광역화된 2호선 노선계획이 나와있다"며 사실상 광주 도심을 크게 아우르는 확대순환형 추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3면) '확대순환형'은 기존 '남북형'(효천역~백운광장~터미널~시청~백운

광장~효천역)에다 장기 검토 노선인 3호선(철단·수완~시청~급호·중앙지구~백운광장)까지 포함시켜 2호선을 건설하자는 안이다. 시는 확대순환형을 중심으로 지선망 연결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에서 노선을 공개 검증받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재정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15년 동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비록 타당성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하계U대회 SOC 확충차원에서 사업이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시장은 또 2015하계유니버시아

드 대회 선수촌은 메인스타디움(광주월드컵경기장)과 5분 거리에 짓는 것을 검토할 것이며, 야구장 건설계획은 올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같은 날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도 팽목항을 남해안권 해상물류 및 해양관광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팽목항 아시안 게이트(Asian Gate)'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진도 팽목항을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선도사업으로 추진기로 했다"며 "팽목항 일원에 2020년까지 1조5천억 원을 들여 국제물류터미널과 해양공원, 주거·비즈니스·물류상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J프로젝트와 관련 "정

부에서는 시범사업지역인 1천만 평만 개발하라는 의견이지만, 전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애초 계획대로 3천만 평을 모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F1대회에 대해선 "국회에서 F1지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지사는 또 무안공항 문제와 관련된 "대도시 안에 공항이 있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은 인젠가는 통합운영돼야 하며, 지역민들도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행기·윤영기기자 redplane@

신양파크호텔 여름 해당 패키지
 여름이제는 7월 여름에 가장 낭만!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수능 응시과목 2개 축소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을 현행보다 2과목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현행보다 1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4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1과목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알림

업그레이드 광주일보 아침이 풍성해집니다

57년 역사의 호남 대표신문 광주일보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됩니다. 교양과 흥미를 주는 신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문 광주일보는 국내외 심층 취재 연재물을 강화하고 독자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6가지 경제테마로 아침밥상 알차게

월요일 증시전망, 화요일 지역명품, 수요일 실속 재테크, 목요일 Digital & IT, 금요일 일터, 토요일 주말쇼핑 등 6가지 테마로 독자 여러분의 아침 경제밥상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독자들이 직접 꾸미는 '독자와 함께' 신설

독자 여러분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주말판에 독자들이 직접 꾸미는 면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고장 기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 독자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사진들을 받아 보도해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진미술관 시리즈, 유럽편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취재기획 시리즈로 다뤘던 선진미술관 미국편에 이어 이번에 유럽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상필 EU특파원이 취재한 유럽의 유명 미술관들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독자들에 미술세계에 대한 안목을 더욱 넓혀 드릴 것입니다.

일상속의 여유 '월요 갤러리'

일주일을 여는 월요일 아침, 문화의 향기를 전해줄 '월요 갤러리'는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코너입니다. 회화·설치·조각·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선도하는 기획물

전남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고, 전남도내 일선 시군이 생물·의약산업의 본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르네상스' '생의학 산업 벨트를 가다' 등 새 기획시리즈를 통해 지역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월요부록 '한자 이야기'

독자 여러분과 자녀들의 한자 실력 향상을 위해 만화 한국사로 배우는 한자 이야기를 매주 월요일 부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만화가가 엮어낸 울 컬러판 한자이야기는 한글세대·키보드세대 자녀들의 한자실력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09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062)220-0541, 1558-0796

로즈워터의 여름 SUMMER

로즈워터로 속살까지 촉촉하게! 페티바스 로즈 에센스 바디워셔

Made in Nature

로즈워터로 속살까지 촉촉하게! 페티바스 로즈 에센스 바디워셔